

유아기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박혜원
아동가정복지전공

<요 약>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3세에서 6세 사이의 유아를 둔 부모(367명)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참여 정도, 양육 행동 및 양육 태도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였다. 3-6세 아동의 부모 양육 행동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신체로 칭찬을 표시하며 말로 훈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녀의 문제 행동들에 대한 요인 분석한 결과 제 1요인은 내재화 문제, 제 2요인은 외현화 문제, 그리고 제 3의 요인은 반사회성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문제 행동 점수 및 전체 문제 행동 점수에 대해 부모의 양육 참여시간(책 읽어 주는 시간, 대화 시간)등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부모의 양육 참여양과 문제 행동간에는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책을 읽어 주는 지 여부에 따른 문제 행동간에는 상관이 있어 책을 많이 읽어 줄수록 외현화 문제, 그리고 반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 양육 유형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애정-통제 두 차원에서 모두 높은 권위있는 집단의 자녀가 가장 많은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애정은 낮으나 통제성이 높은 권위적 양육 유형 집단에서 가장 높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제행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 유형이 권위있는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권위적인 양육유형을 보일 때 가장 내재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의 경우 아버지의 경우는 권위있는 양육유형일 때가 가장 많았으나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alyses of parenting behavior and problem behavior in young children

Hyewon Park Choi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 본 연구는 2001년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Abstract>

Three hundred and sixty seven parents with 3-6 year olds in Ulsan were surveyed on parenting behavior and attitudes. It was found that Korean parents reinforced their preschoolers with physical praise rather than material or other reinforcers. They used verbal punishment more than physical punishment. Factor analyses revealed that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were grouped into three factors, internalized problems, externalized problems and anti-social behaviors. There were no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the parents' involvements in time. But parenting styles predict different children's problem behavior.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동기 문제행동을 발달과정중에 어린 아동에게서는 흔히 나타나는 발달지연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문제행동의 명명 등이 간과되어 왔던 것에 일부 기인한다. 그러나 어린 유아기부터 나타나는 많은 문제행동은 무엇보다도 현대의 복잡한 사회문제에 기인한다. 대가족 사회가 무너지고,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되고 있으며 사회 격변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의 양육지식의 결핍과 더해져 어린 유아의 양육 환경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발달은 부모의 양육 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umrind(1967)은 부모의 양육행동은 크게 애정성(warmth)의 차원과 통제성(control)의 차원에서 차이를 보여 애정성과 통제성이 모두 높은 집단(권위있는, authoritative)의 경우 자녀의 도덕성, 성취도,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높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반면 애정성은 높더라도 통제성이 낮은 허용적(permissive)인 부모의 자녀는 비행행동을 높게 보이는 등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애정성은 낮으며 매우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지닌 권위적(authoritarian) 부모의 자녀도 도덕성이 낮고 자발성이 부족한 등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강란혜, 1990; 권순명, 1993; 권옥자, 1987; 김지신, 1985; 미송희, 1979; 이수연, 1985; 조복희·현운강, 1994; 차춘희, 1983; 최경순, 1991; 1992; Ainsworth, 1979; Baumrind, 1967).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모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이상의 중고등학교의 부모를 대상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3-6세 사이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3-6세 사이의 아동 367명(남아 189명, 여아 178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울산 시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의뢰하여 임의표집하여 450개 가정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367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 도구 및 분석 방법

설문지에는 가정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에 대한 문항외에 자녀양육에 대한 문항 20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문항 12개가 포함되어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참여 행동은 아버지의 경우 놀이 시간, 자녀 양육활동참여(목욕시키기 등), 자녀 조기교육 정도 및 자녀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양육행동으로는 부모 모두에게 칭찬과 벌의 방법, 지난 6개월간 체벌 횟수, 성역할 사회화 등의 측면을 조사하였다. 또한 자기 보고식으로 양육 유형을 조사하였는데 부모의 자녀 존중 정도, 자녀를 다정하게 대하는 정도, 자녀가 규칙을 지키게 하는 정도, 자녀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는 정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정도 등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부모자녀간 별거경험 및 별거부모, 양육에서의 부부 일치, 부모자녀 대화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저녁식사 횟수등을 조사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발육 건강문제(대소변 문제, 손가락 빠는 행동, 섭식문제:편식, 과식, 수면문제, 야경증) 및 정서문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정서적 문제는 주의산만(심각), 겁 많고 불안, 집중력, 거짓말, 자주 싸움, 괴롭힘, 괴롭힘 당함, 비정상적인 성관심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술 통계, t 검증, 요인분석 등을 위해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표 1에서 아동의 가족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초대졸 이상-대졸이하가 가장 많은 54.9%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고졸이하로 42.0%였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고졸 이하가 가장 많아 60.8%를 나타냈고, 다음은 초대졸이상 대졸이하로 32.6%를 나타냈다.

표 1. 대상아동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아버지	어머니
성별	남	189 (51.5)	
	여	178 (48.5)	
	계	367 (100.0)	
부모학력	중졸이하	4 (1.1)	5 (1.5)
	고졸이하	146 (42.0)	223 (60.8)
	대졸이하	191 (54.9)	112 (32.6)
	대학원졸이상	7 (2.0)	4 (1.1)
	계	348 (100.0)	344 (100.0)

<표 1> 계속

		아버지	어머니
부모직업	전문직	7 (2.0)	0 (0.0)
	경영관리직	62 (18.0)	1 (0.3)
	전문기술직	12 (3.5)	16 (4.8)
	사무직	197 (57.1)	13 (3.9)
	공무원	15 (4.3)	6 (1.8)
	자영상인, 제조업자	20 (5.8)	6 (1.8)
	자영기술자,	11 (3.2)	1 (0.3)
	자영기능인		
	자영서비스	5 (1.4)	0 (0.0)
	판매원	0 (0.0)	3 (0.9)
	생산기능직	2 (0.6)	0 (0.0)
	고용원, 서비스직	6 (0.6)	2 (0.6)
	단순노무직	2 (0.6)	0 (0.0)
	무직, 가사	0 (0.0)	282 (85.5)
기타	3 (0.9)	0 (0.0)	
계	345 (100.0)	330 (100.0)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10 (2.8)	
	100만원 - 200만원	191 (53.2)	
	200만원 - 300만원	116 (32.3)	
	300만원 - 400만원	32 (8.9)	
	400만원 - 500만원	7 (1.9)	
	500만원 이상	3 (0.8)	
계	359 (100.0)		

* 무응답에 의해 계에 차이가 있음.

아버지의 직업은 57.1%가 사무직이며 다음은 18.0%인 경영관리직, 5.8%인 자영상인/제조업자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대부분이 전업주부로 85.5%를 차지했고 다음은 4.8%인 전문기술직이었다. 조사 가정의 총가계소득은 100만원-200만원 사이가 53.2%, 200만원-300만원 사이가 32.3%로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은 전체의 11.6%정도였다.

표 2에서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1일 평균 30분 미만이 53.1%였고 그 다음은 30분-1시간 미만이 29.2%로 나타났으나 어머니는 30분-1시간이 39.0%, 1시간에서 2시간인 경우가 27.5%였으며, 30분 미만은 17.1%로 보고되었다.

표 2. 부모와의 1일 대화시간

(N(%))

	아버지	어머니
1분 - 30분 미만	164 (53.1)	56 (17.1)
30분 - 1시간 미만	90 (29.2)	127 (39.0)
1시간 - 2시간 미만	43 (13.9)	90 (27.5)
2시간 - 4시간 미만	10 (3.2)	50 (15.3)
4시간 - 6시간 미만	1 (0.3)	3 (0.9)
계	308 (100.0)	326 (100.0)

표 3에서 3-6세 아동의 어머니가 책을 읽어 주는 빈도는 1주일에 3-4회가 37.1%, 매일은 32.4%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책을 읽어 주는 경우 평균 시간은 10-30분 정도가 가장 많아 67.0%, 10분 미만은 21.1%로 비교적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어머니가 책 읽어주는 빈도 (N(%))

책읽어주는 빈도	빈도(%)	한번에 책 읽어주는 시간	빈도(%)
매일	118 (32.4)	10분 미만	75 (21.1)
1주 3-4번	135 (37.1)	10분 - 30분 미만	238 (67.0)
1주 1번	60 (16.5)	30분 - 1시간 미만	40 (11.3)
한달 1-2번	33 (9.0)	1시간 이상	2 (0.6)
못읽어줌	18 (4.9)		
계	364 (100.0)	계	355 (100.0)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3-6세 아동의 아버지가 자녀를 칭찬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상의 경우 신체적으로 쓰다듬어 주거나 표현하는 경우는 49.1%, 그 다음은 말로 칭찬하는(43.7%)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대부분 신체적으로 표현하여 80.8%가 해당하였으며 그 다음이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칭찬을 해야 할 때 아버지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는 3.1%정도 되었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0.4%만이 해당하였다. 또한 표 5에서 부모님의 훈육방법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말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55.3%, 말로 야단치는 경우는 24.5%였으나 어머니는 41.4%가 말로 야단을 치고 설명을 하는 경우는 39.4%에 해당하였다.

표 4. 부모님 칭찬방법 (N(%))

	아버지	어머니
말로 표현	128 (43.7)	50 (18.1)
신체적 표현	144 (49.1)	224 (80.8)
돈을 줌	4 (1.4)	0 (0.0)
물건으로 줌	8 (2.7)	2 (0.7)
표현 안함	9 (3.1)	1 (0.4)
계	293 (100.0)	277 (100.0)

표 5. 부모님 훈육방법 (N(%))

	아버지	어머니
말로 설명	167 (55.3)	96 (39.4)
말로 혼냄	74 (24.5)	101 (41.4)
벌을 줌	39 (12.9)	33 (13.5)
매립	19 (6.3)	13 (5.3)
내버려둠	2 (0.7)	0 (0.0)
무시	1 (0.3)	1 (0.4)
계	302 (100.0)	244 (100.0)

자녀의 문제 행동을 발육 건강문제(대소변 문제, 손가락 빠는 행동, 섭식문제:편식, 과식, 수면문제, 야경증) 및 정서문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정서적 문제는 주의산만(심각), 겁 많고 불안, 집중력, 거짓말, 자주 싸움, 괴롭힘, 괴롭힘 당함, 비정상적인 성관심 등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 행동을 요인분석하였다. 표 6에서 요인분석시 3개의 요인으로 정리하였을 때 제 1요인은 내재화 문제, 제 2요인은 외현화 문제, 그리고 제 3의 요인은 반사회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별 문제 행동점수, 그리고 전체 문제 행동점수에 대해 부모와의 대화시간, 양육 참여도(책 읽어 주는 시간) 등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부모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간에는 상관이 없었다. 다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 시간간에는 .58정도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각 문제 유형간 상관이 유의하였다.

표 7. 부모 대화시간과 문제 행동간의 상관

	어머니 하루 대화시간	아버지 하루 대화 시간	내재화 문제	외현화문제	반사회성	전체 문제행동
어머니와 하루 대화 시간						
아버지와 하루 대화 시간	.581**					
내재화 문제	-.073	-.094				
외현화문제	-.082	-.064	.217**			
반사회성	.002	.026	.180**	.201**		
전체 문제행동	-.090	-.094	.867**	.616**	.459**	

** p < .01

그러나 표 8에서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는지 여부에 따른 문제행동간에는 상관이 있어 책을 많이 읽어줄수록 외현화문제, 그리고 반사회성 및 문제점수에는 부적인 상관이 있어 문제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대화시간에 관한 문항은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내용은 밝혀줄 수 없으며 그 양으로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없는데 반해 책을 읽어 주는 행동자체는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긍정적 양육행동인 것을 시사한다.

표 8. 어머니가 책읽어주는 정도와 문제 행동간의 상관

	책 읽어주기	책 읽어주는시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반사회성
책읽어주기					
책읽어주는 시간	.170**				
내재화문제	-.119	-.015			
외현화문제	-.161*	.028	.217**		
반사회성	-.172**	-.045	.180**	.201**	
총 문제행동	-.204**	-.034	.867**	.616**	.459**

* p < .05 ** p < .01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애정성과 통제성이 중요한 차원으로 밝혀져 있다 (Ainsworth, 1970). 또한 부모의 양육 행동은 구체적으로 두 차원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양육방식을 권위있는(authoritative) 양육방식, 애정성은 높으나 통제성이 낮은 집단은 허용적(permissive) 양육방식, 애정성은 낮고 통제성은 높은 양육방식은 권위적(authoritarian) 양육방식, 그리고 애정성과 통제성이 모두 낮은 방임적 양육 집단으로 나누어 왔다.

표 9. 문제행동별 부모 양육행동에 따른 차이분석

양육유형	아버지		어머니		
	M(SD)	F	M(SD)	F	
내재화문제	권위있음	9.3864(2.5355)		9.1053(1.8825)	
	허용적	8.0000(1.2247)		8.6000(0.8944)	
	권위적	8.8421(1.7634)	2.788*	9.4000(2.6283)	3.485*
	방임적	8.2679(1.7424)		8.1467(1.4676)	
	전체	8.7552(2.0529)		8.5294(1.8172)	
외현화문제	권위있음	5.7955(1.4560)		5.1176(1.1663)	
	허용적	5.2000(0.8367)		6.0000(1.2649)	
	권위적	5.1892(1.1747)	3.081*	5.4737(1.2635)	2.044
	방임적	5.0727(1.0862)		5.0541(0.9636)	
	전체	5.3333(1.2574)		5.1810(1.0762)	
반사회성	권위있음	2.4783(0.7223)		2.6316(0.7609)	
	허용적	2.6667(0.8165)		2.1667(0.4082)	
	권위적	2.4103(0.7152)	2.891*	2.6364(0.9021)	4.300*
	방임적	2.1607(0.4583)		2.2133(0.4734)	
	전체	2.3469(0.6480)		2.3525(0.6418)	
전체 문제행동	권위있음	17.5500(3.5079)		16.8824(2.8258)	
	허용적	15.8000(1.9235)		16.4000(1.1402)	
	권위적	16.3429(2.6892)	4.079*	17.4118(3.4832)	4.232*
	방임적	15.4906(2.3828)		15.3286(2.1784)	
	전체	16.3459(2.9311)		15.9450(2.6064)	

* p < .05

부모양육 유형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소재파악, 친구에 대한 파악, 규칙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통제성을 측정하였고 또한 자녀에 대한 정성, 대화, 정서교류 등을 애정성의 측정으로 채택하였다. 전체 부모 중 통제성 총점이 최빈값보다 높은 집단, 최빈값보다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중간집단은 제외하였다. 또한 애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최빈값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만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통제성이 최빈값보다 높고 또한 애정성도 최빈값보다 높은 집단은 권위있는 부모양육 유형 집단, 통제성은 높지만 애정성은 낮은 경우는 권위적 부모양육유형 집단, 통제성은 낮으며 애정성은 높은 집단은 허용적 부모양육유형 집단, 애정성과 통제성이 모두 낮은 경우는 방임적 부모양육유형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9에서 부모 양육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애정-통제 두차원에서 모두 높은 권위있는 집단의 자녀가 가장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애정은 낮으나 통제성이 높은 권위적 양육유형집단에서 가장 높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제행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유형이 권위있는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권위적인 양육유형을 보일 때 가장 내재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의 경우 아버지의 경우는 권위있는 양육유형일 때 그리고 어머니는 양육유형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허용적 양육유형집단에서 가장 외현화 문제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10. 문제행동유형별 부모님 아동 칭찬방법의 차이분석

방법	아버지		어머니		
	M(SD)	F	M(SD)	F	
내재화문제	말로 표현	8.8571(2.2245)		8.9444(1.8965)	
	신체적 표현	8.6992(1.9667)		8.6387(2.0158)	
	돈을 줌	8.0000(1.4142)	1.026		.262
	물건을 줌	10.0000(1.7321)			
	표현안함	8.5254(1.5127)			
	계	8.7288(1.9608)			
외현화문제	말로 표현	5.1895(0.9373)		5.5714(1.3125)	
	신체적 표현	5.1570(1.2781)		5.1895(1.1296)	
	돈을 줌	5.5000(0.7071)	2.719		1.594
	물건을 줌	6.6250(1.3025)			
	표현안함	5.3333(1.2111)			
	계	5.2414(1.1271)			
반사회성	말로 표현	2.4510(0.6983)		2.4000(0.7356)	
	신체적 표현	2.3120(0.5738)		2.3571(0.6365)	
	돈을 줌	2.0000(0.0000)	2.846		1.011
	물건을 줌	3.0000(0.9258)			
	표현안함	2.0000(0.0000)			
	계	2.4092(0.6692)			
총문제행동	말로 표현	16.3750(2.7970)		16.6774(3.1346)	
	신체적 표현	16.0696(2.7297)		16.0769(2.6623)	
	돈을 줌	15.5000(2.1213)	2.300		.634
	물건을 줌	19.4286(3.1547)			
	표현안함	15.3333(1.8619)			
	계	16.2800(2.7000)			

표 10에서 문제행동유형별 부모님 아동 칭찬방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말로 표현, 신체적으로 표현, 돈을 줌, 물건을 줌, 표현하지 않음 등의 칭

찬 방법에 따른 차이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훈육방법의 차이는 있어서 표 11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표 11. 문제행동유형별 부모님의 훈육방법

훈육방법	아버지		어머니		
	M(SD)	F	M(SD)	F	
내재화문제	말로 설명	8.8085(1.9158)		8.4375(1.5739)	
	말로 혼냄	8.7636(1.8456)		9.1059(2.2627)	
	벌을 줌	9.1515(2.1378)	1.446	8.4643(2.0273)	4.438*
	때림	9.1333(2.7740)		9.3333(1.1180)	
	내버려둠	8.0000(1.4142)			
	계	8.7340(1.9556)		8.7133(1.9589)	
외현화문제	말로 설명	5.1594(1.0891)		4.8442(0.7958)	
	말로 혼냄	5.3273(1.1231)		5.5000(1.3398)	
	벌을 줌	5.6176(1.4567)	1.663	5.5357(1.1380)	3.516*
	때림	5.6429(1.2157)		5.4000(1.1738)	
	내버려둠	5.0000(0.0000)			
	계	5.2389(1.1246)		5.2365(1.1191)	
반사회성	말로 설명	2.3099(0.5977)		2.3544(0.6210)	
	말로 혼냄	2.4483(0.6798)		2.4318(0.6914)	
	벌을 줌	2.6857(0.7960)	1.865	2.5357(0.7445)	.539
	때림	2.5333(0.7432)		2.4000(0.5164)	
	내버려둠	2.0000(0.0000)			
	계	2.4066(0.6678)		2.4026(0.6658)	
총문제행동	말로 설명	16.2366(2.4677)		15.5867(2.0801)	
	말로 혼냄	16.4615(2.4691)		16.9500(2.9720)	
	벌을 줌	17.2188(3.1799)	1.947	16.2800(3.1294)	4.509*
	때림	16.9167(4.2525)		16.6250(1.6850)	
	내버려둠	15.0000(1.4142)			
	계	16.2780(2.6916)		16.2500(2.6924)	

*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3세에서 6세 사이의 유아를 둔 부모(367명)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참여 행동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였다. 3-6세 아동의 부모는 양육 및 훈육시 부모 모두 신체로 칭찬을 표시하며 말로 훈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설문지가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응답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

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문제 행동들에 대한 요인분석한 결과 제 1요인은 내재화 문제, 제 2요인은 외현화 문제, 그리고 제 3의 요인은 반사회성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문제 행동 점수 및 전체 문제 행동점수에 대해 부모와의 대화시간, 양육참여도(책읽어 주는 시간) 등 과상관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부모 양육참여 정도(시간)와 문제행동간에는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책을 읽어주는지 여부에 따른 문제행동간에는 상관이 있어 책을 많이 읽어줄수록 외현화문제, 그리고 반사회성 및 문제점수에는 부적인 상관이 있어 문제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양육 유형을 Baumrind(1967, 1971)이 구분하는 권위 있는(authoritative), 권위적인(authoritarian), 허용적인(permissive)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 양육유형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경우 애정-통제 두 차원에서 모두 높은 권위있는 집단의 자녀가 가장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애정은 낮으나 통제성이 높은 권위적 양육유형집단에서 가장 높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제행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유형이 권위있는 경우 다른 부양육유형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권위적인 양육유형을 보일 때 가장 내재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의 경우도 아버지의 경우는 권위있는 양육유형일 때가 가장 많았으나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유형과 아동기 문제간에는 기대한 것과 같은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아버지의 양육방식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는 권위있는 유형이 문제행동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Baumrind, 1967)에서 무관심한 양육행동(uninvolved parenting)이 가장 나쁜 양육방식이며(Maccoby, Martin, 1983), 권위있는 양육유형이 가장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Glawgow, Dornbusch, Troyer, Steinberg, & Ritter, 1997; Steinberg, Lamborn, Darling, Mounts, Dornbusch, 1994; Pinto, Flokers, & Sines, 1991; Scott, Scott, & McCabe, 1991)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 나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행동이 비교적 낮은 것을 감안할 때 권위있는 유형의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문제 행동이 높아 부모의 관여나 통제력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본 연구결과의 반복 검증가능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이 모두 부모의 보고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보고의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란혜(1990).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역할 특성간의 관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권옥자(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지신(1985).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아동의 감정어입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미송희(1979). 부모의 양육태도와 동료의 유혹에 대한 저항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조복희·현은강(1994). 한국부모의 부모역할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87.
8. 차춘희(1983). 부 부제와 모자 상호작용의 길이 유치원 아동의 지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최경순(199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9(1), 223-239.
10.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Ainsworth, M.(1979). Attachment as related to mother-infant interaction. In J.S. Rosenblatt, R.A. Hinde, C. Beer, & M. Busnel(Eds.), *Advances in the study of behavior*(Vol. 9). New York: Academic Press.
12.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13.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1-102.
14. Glawgow, K., Dornbusch, S., Troyer, L., Steinberg, L., & Ritter, P. (1997). Parenting style,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eous high schools. *Child Development*, 68, 507-529.
15. Pinto, A., Flokers, E., & Sines, J. (1991). Dimensions of behavior and home environment in school age childre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2, 491-508.
16. Scott, W., Scott, R., & McCabe, M. (1991).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personality: A cross-cultural, cross-source comparis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1-20.
17. Steinberg, L., Lamborn, S., Darling, N., Mounts, N., Dornbusch, S.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